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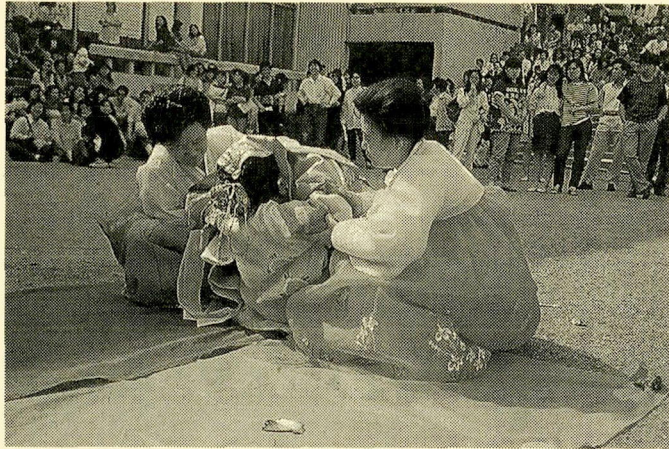
순결 여전히 중시, 결혼 후 여성의 직장 생활엔 긍정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혼 남녀 3천7백여명 대상 조사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은 배우자의 순결에 대해서 아직도 엄격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18~34세 미혼남녀 총 3천7백15명(남자 1천9백91명, 여자 1천7백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혼자의 결혼관'에 의하면 모든 남녀가 순결이 결혼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답변했다.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남자(40.7%)와 여자(45.2%)가 모두 찬성했는데 여자의 순결에 대해서는 38.9%가, 남자의 순결에 대해서는 20.8%만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남녀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미혼남녀가 임신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16.7%, 여자는 8.1%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답변해 남자 쪽에서 높게 나왔고 여자의 16.1%는 절대 출산해서는 안된

다고 답했다.

미혼자들 중 피임에 대한 지식에서 피임방법을 알고 있는 남자가 54%, 여자는 41%였으며 실제 피임을 한 경험은 30~34세의 남자(28.2%)와

여자(58.4%)가 많았다. 임신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자는 자신에 의해 임신을 했던 경우가 5.9%였으며 여자는 3.2%였다. 이러한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처리한 사람(남 79.2%, 여 88%)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미혼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 비용은 남자가 1천3백38만원, 여자가 1천1백4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가 예상하고 있는 평균 결혼 비용은 1천2백47만원으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남자쪽의 비용 예상액이 더 많았다.

결혼 비용은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일수록 높게 잡았다. 취업 형태별로는 집안일

만을 돌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낮아 9백59만원 수준이었고 취업 중인 경우는 1천1백만원 그리고 학생의 경우가 가장 높은 1천5백45만원이라고 답변했다.

그런가 하면 미혼자들이 대부분 결혼 상대를 일정기간의 연애기를 가진 후에 결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가족의 소개(25%), 사회적 모임(23%), 교우관계(16%), 직장관계(15%)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결정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대상이나 가족, 그외의 다른 사람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대상 중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남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뜻으로만 결정하겠다는 남자(11.7%)가 여자(6.4%)보다 많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견은 남녀 모두

9%에 불과했다. 평균 결혼적령기는 남자가 28.6세로, 여자가 25.3세로 대답했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남녀 평균 1.8명으로 2명이 이상적(59.4%)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1명(25.2%), 자녀를 원치 않는 경우도 3.7%나 되었다. 자녀를 원치 않는다고 대답한 미혼을 보면 저학력층, 청소년과 직업을 갖지 않은 쪽에서 높게 나왔다.

한편 미혼자들은 남자(77.1%), 여자(87.4%) 공히 결혼 후 여성취업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여성 취업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취업을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립(17.7%), 시대적 요구(17.3%)라고 지적했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자녀부양이나 남편에 대한 내조(20.7%), 또는 여성취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1.9%)는 전통적 개념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